



김효신의 노르웨이 베르겐 여행기
Norway in a Nutshell

1. 베르겐 (Bergen) 도착

비행기가 지나온 경로는 코펜하겐으로부터 1시간 10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다. 북극을 돌았는지 온통 하얗게 얼어 붙은 세상이었다. 이런 세상의 끝 북쪽에 어떻게 사람들이 무리지어 살게 되었을까? 구름을 뚫고 하강하는 비행기는 마치 전속력으로 우주를 가로질러 와 구름과 안개에 뒤덮인 미지의 행성으로 진입하는 우주선처럼 서서히 다가오는 노르웨이 땅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다.



좁마를 따라 공항 건물로 들어섰다.

베르겐공항은 아담했다. 따뜻한 공항 안에는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어 있었고, 덴마크 사람들과 닮았지만 어딘지 약간 더 우직하게 보이는 노르웨이 사람들이 도착하는 이들을 맞아 주었다. 입국 수속을 하고 가방을 찾아 공항을 나갈 준비가 되었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핸드폰이 불통이었다. 유심칩이 문제인 것 같았다. 코펜하겐에서 구입할 때 노르웨이에서도 통한다고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고 샀는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다. 핸드폰이 불통이라 R에게 도착했다는 연락도 못 하고 매우 불안했지만 어쨌든 베르겐 시내로 들어가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니 마음을 접고 공항 밖으로 나왔다.

처음에는 그저 눈 덮인 하얀 땅이 보였다. 그리고 곧 그 하얀 땅은 검은 빗살무늬로 새겨져 있다는 것을 본다. 검은 빗살무늬는 가까워지며 원래 모습을 드러낸다. 산맥과 협곡들이다. 평지는 전혀 없을 것 같은 지형이다. 비행기는 급속 하강하다가 갑자기 속력을 낮추며 한 지점으로 방향을 맞췄다. 베르겐 쪽이다. 담요처럼 짙어 막고 있던 구름이 점점 열리고 있다. 어느 순간, 구름 커튼이 활짝 열렸다. 눈앞에 거친 산, 협곡, 바다, 호수가 한꺼번에 보이며 베르겐이 나타났다. 회색이다. 젖어 있다. 그러나 어찌저 저 멀리에 빛이 보이는 듯한 그 도시로 비행기는 계속 내려간다. 오늘 베르겐에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다는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노르웨이에서 비행기는 이륙할 때처럼 가볍게 내려 앉았다. 온통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한 북유럽인 승객들 사이에 끼어 나도 내릴 준비를 했다. 트랩을 내려가 공항 건물로 걸어가야 하는 자그만 공항이다. 트랩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 후드득 내리치는 비를 맞았다. 비가 내리는구나. 나는 베르겐에 도착했다! 내 앞에 내린 중년 여성이 뒤돌아 보며 싱긋 웃었다. '관광객이시죠?' 하는 것 같았다. 얼굴도 크고 키와 체격도 넉넉해 노르웨이 여자인 듯한데 연한 하늘색 모직 코트를 입고 베이지색 캐시미어 스카프를 두른 모습이 너무나 멋있고 당당했다. 나는 처음으로 노르웨이 땅을 밟고 베르겐의 비를 맞으면서 그 강인하게 생긴 바이킹 후에 아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다. 부연 회색으로 가라앉아 비에 젖어 있는 공항 밖 맞은편 언덕에 'BERGEN?' (베르겐?) 이라고 묻고 있는 노란 표지판이 눈에 확 들어 왔다. 왜 물을 표를 붙였을까? '베르겐 어퍼세요?', '베르겐은 처음이신가요?', '아니, 베르겐이라고요?', '왜 베르겐이죠?'. 나는 그 물음표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다가 택시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렸다.

주위를 둘러 보는데 눈앞에 '베르겐행' 이라고 표시를 한 큰 버스가 막 출발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얼른 달려가 짐을 싣고 있는 아저씨에게 내가 목을 호텔 이름을 말하고 그 쪽으로 가느냐고 물었다. 빨리 타라고 하면서 버스표는 운전 기사에게 사라고 한다. 나는 가방을 건네 주고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표는 15노르웨이 크로나. 운전기사는 금발머리를 양쪽으로 뿔아 내린 통통한 아가씨였다. 착하고 순박해 보였다. 노르웨이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사람들이 친절하고 순진해 보인다. 아니면 관광지라 특화된 것인가? 또 생각해 보는 사이 어느새 버스는 출발했다.

더특스피부관리!!
작은 디테일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올리브스킨케어

Olive Skin Care
PREMIUM

**경락 리프팅
마사지**

- 수분
- 리프팅
- 탄력 관리

여드름
브라이트닝
아쿠아필

714.735.8844 7041 Western Ave. #C, Buena Park, CA 90621

부에나 파크 양로병원

Buena Park Nursing Center ★★★★★

Skilled Nursing IV 투여, 당뇨, 통증관리, 투석케어 외상치료, 호스피스케어 등

Subacute Unit Respiratory, Tracheostomy Care Ventilator 등

서비스	여가 특별 활동
한국음식 또는 미국음식 한국인 스태프 / 한국인 소셜워커 한국책, 신문 / 24시간 한국방송 다양한 한인교회 봉사활동	피아노, 합창 하프연주, 빙고 기타 + 난타연주 생일파티, 아침제초 미술공작, 바디워십 털발 가구기 등

재활치료
물리치료 / 작업치료 / 언어치료

www.buenaparknc.com

메디케어, 개인, 메디칼, HMO, PPO 취급합니다

한국분이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한국어: 562-240-3516
영어: 714-828-8222 Fax: 714-828-1467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간호보조사(CNA)구함
영어 / 한국어

HACCP인증과 FDA승인을 받은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청정 봉화김치

봉화 청량산 김치

KOREAN CABBAGE | 포기김치 MADE IN KOREA

봉화 청량산 김치 10kg \$45 5kg \$25	봉화 청량산 백김치 4kg \$25	봉화 청량산 총각김치 2kg \$30
봉화 청량산 파김치 2kg \$35	봉화 청량산 갓김치 2.5kg \$28	봉화 청량산 동치미 2kg \$20
봉화 청량산 식바지 2kg \$20	봉화 청량산 깍두기 2kg \$15	

믿을 수 있는 정직한 재료로
한국의 맛을 담았습니다

한국직수입!
봉화 청량산 김치!

NO 방부제 NO 조미료 NO 색소 NO 화학첨가물

안전하고 맛있는 봉화 청량산 김치!

농수산물 마트 **714-403-1230**
1811 W Commonwealth Ave. #M Fullerton, CA 92833 (은혜한인교회 옆)

Commonwealth 은혜교회
Bookhurst 91
5